



COVID-19 전후 요양병원 환자의 활동참여와 우울 변화 탐색

전 승 연¹, 김 홍 수^{1,2,3*}, 정 영 일⁴, 최 정 연⁵, 김 광 일⁵

¹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, ²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, ³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

⁴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보건환경학과, ⁵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인병내과

Objective

- 2020년 초 시작된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(COVID-19) 유행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COVID-19 감염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, 국가 차원의 보건정책적 대응이 시도되었음. 특히 감염에 취약한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예방적 보호조치로서 외부인의 접촉을 차단하였으며, 대표적으로 요양병원이 해당함.
- 요양병원은 의료적 니즈가 높은 취약한 노인 환자의 비율이 높고 장기입원자가 많다는 특성이 있음. 기 보고된 국외 자료들에 의하면, COVID-19 상황에서 외부인의 접촉 차단은 장기요양기관 거주자의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과 신체활동 저하 및 관련된 기능저하의 위험,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우울 및 상태의 불안정성의 가능성을 높임.
- 취약한 장기요양기관 입원자의 신체기능상태 뿐만 아니라 정서적 및 사회적 영향을 파악하고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.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COVID-19로 인한 요양병원 등 장기요양기관 입원자의 정서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음.
-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요양병원의 노인환자의 COVID-19 유행으로 외부인 접촉 차단 시행 전후의 시설 내 사회활동 참여와 우울 변화를 탐색하고자 함.

Method

-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위치한 요양기관 (요양병원 및 시설)을 대상으로 '의사-의료인간 ICT 맞춤형 고령자 통합 협진 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'에서 수행된 요양기관 입원노인의 건강 및 기능수준 등 포괄평가를 2회 조사한 자료를 2차 분석하였음.
- 연구대상자는 COVID-19 유행으로 요양병원의 외부인 접촉차단을 시행하기 이전(1차 조사)과 이후(2차 조사)에 수행한 요양병원 3개 기관의 입원노인 중 MMSE 점수 10점 상의 인지기능 손상이 심하지 않은 95명임.
- 수집된 자료는 장기요양 이용의 포괄적 기능평가 도구인 인터라이 장기요양시설 평가도구(interRAI Long Term Care Facility, interRAI LTCF) 한국어판을 활용하였음. 사회활동참여는 개정된 사회활동참여 지표(revised index for social engagement, RISE)로 측정하여 0-2점은 사회활동참여 낮음, 3-6점은 사회활동 참여 높음으로 분류하였음. 우울은 우울척도(Depression Rating Scale, DRS)로 측정하여 0점은 우울 문제 없음으로, 1-2점은 우울 저위험군, 3점 이상은 우울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음.
- 분석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기술분석 하였고,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시설내 사회활동 참여와 우울 증상에 대해 단변량 카이제곱 검정을 수행하였음.

Result

연구결과 요약

- 연구대상자는 여성이 약 68%로 남성에 비해 2배 정도 많았고, 평균 연령은 81세이며, 평균 입원기간은 549일이었음.
- 연구결과 COVID-19 유행으로 요양병원의 외부 접촉이 차단되기 전(1차 조사)과 후(2차 조사)의 사회활동참여 지표(RISE)에 유의한 증가가 있었으며 ($p=0.0408$), 이는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시설 내에서 사회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.
- 또한 우울척도(DRS)를 비교 시, COVID-19 유행으로 요양병원의 외부 접촉이 차단되기 전과 후의 정상군은 절반 이상으로 감소하였고, 우울 저위험군은 약간 증가하였으며 우울 고위험군은 상당히 증가하여, 우울 증상에 유의한 증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($p=0.0059$) 요양병원의 외부인의 접촉이 차단된 상황에서 요양병원 노인환자의 우울 증상이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하였음.

그림 1. COVID-19 유행 (외부인접촉차단) 전후 사회활동참여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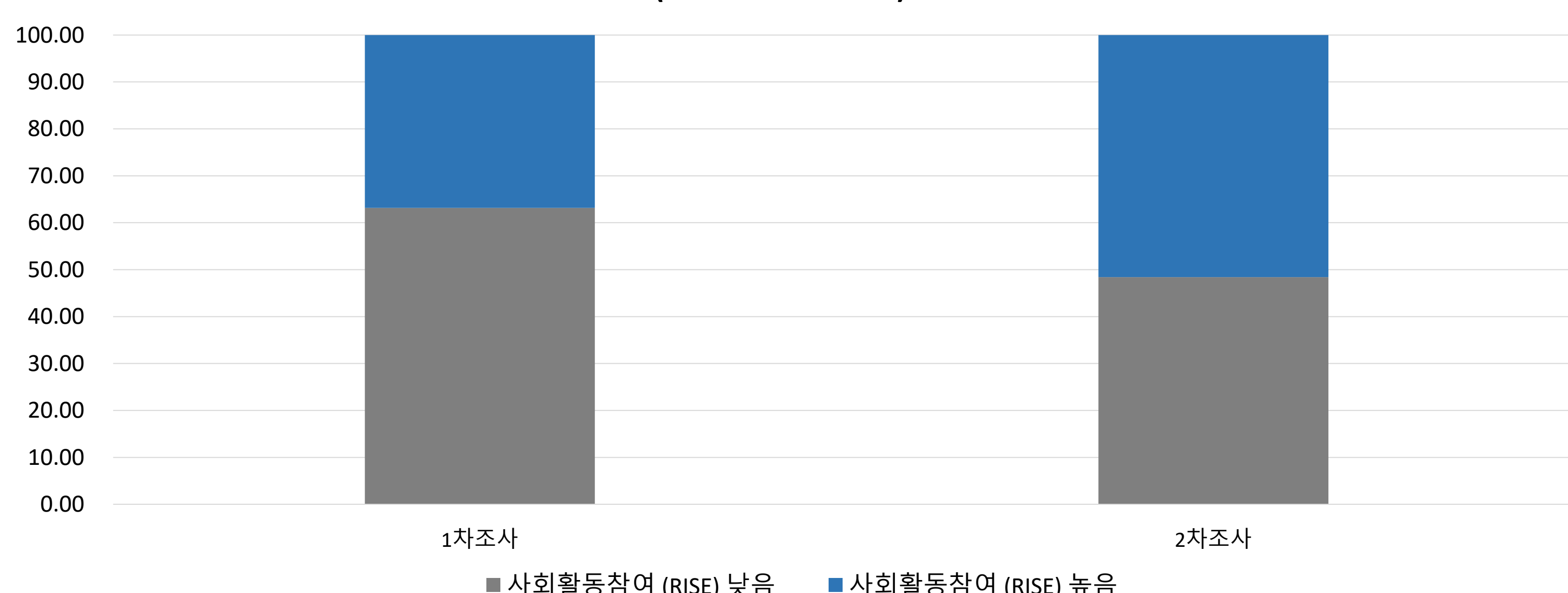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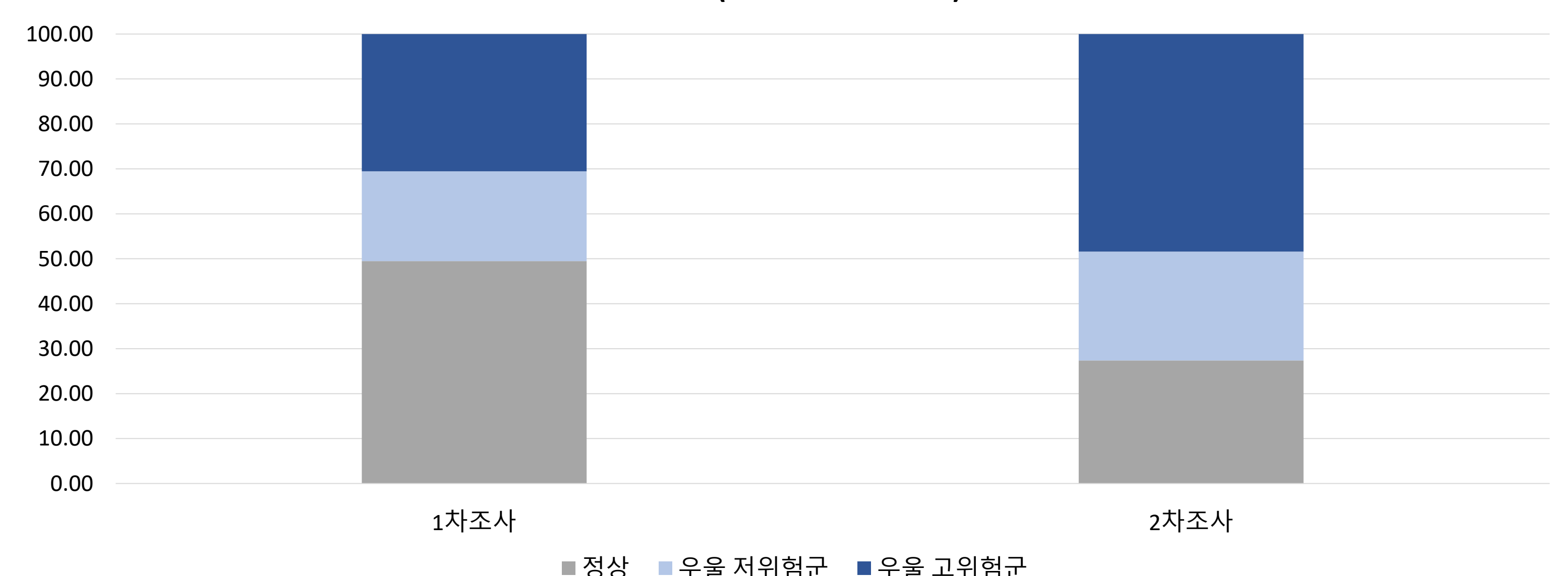


그림 2. COVID-19 유행 (외부인접촉차단) 전후 우울 변화



Conclusion

- COVID-19의 지속적인 유행으로 전체 인구집단에서 사회적, 정서적 영향이 있으나 특히 취약한 집단에서의 그 영향은 더 클 것이 예상됨에도 이들 집단의 영향에 대해 보고된 바가 없었음.
- 대표적인 집단으로 건강기능이 저하된 고령의 요양병원 환자들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, COVID-19 장기화로 요양병원 환자의 외부 접촉이 차단된 시점 전후로 취약한 요양병원 노인환자들의 정서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요양병원 환자 등 장기요양기관의 취약한 대상자들에게 더 나은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, 향후 관련 연구들의 진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◆ 교신저자: 김홍수 (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교수, 보건환경연구소, 노화고령사회연구소 겸무연구원), email: hk65@snu.ac.kr

◆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(HI18C0037), 정부재원(교육부 BK21플러스 사업비)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(A0451-20210100).



SNU GSPH
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
Seoul National University

